

전주시, 청년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신중양시장 청년 점포 설치 취업보장형 통합교육 청년상상놀이터 등 추진

청년실업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가 청년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주목받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청년몰이 운영 중인 남부시장에 이어 오는 5월에는 신중양시장에도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청년 점포 10곳이 들어선다.

이 사업은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데 따른 것으로 신중양시장 내 2층 빈점포(완산구 대평동 40-4의 2필지 488㎡)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낙후된 시설과 식료품 판매 위주였던 전통시장에 젊음과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남부시장에 이어 신중양시장도 기존 중·장년층 중심에서 젊은 층까지 고객 연령이 확대돼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전통시장에 청년점포가 들어서게 된 것은 앞서 청년몰이 들어선 남부시장이 청년창업자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례가 된 때 문이다. 전주지역 청년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통한 창업으로 건강한 지역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지난 2011년~2013년까지 3년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상시(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조성된 남부시장 청년몰은 인근 주민들을 관광효과와 맞물려 전통시장인 남부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 또 이후에는 남부시장에 아시안가



오만대사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기념식 2023 젤버리 새만금 유치 아프리카 출장 마지막 공식 일정인 16일(현지시간) 아프리카 오만대사관에서 열린 한지산업 활성화와 한지 연계산업의 동반 성장 및 전북의 한스타일을 세계에 알리는 재외공관 한스타일 공간연출 기념식에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 식수를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지 들어서며 쇼핑과 문화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청년들의 열정과 아이디어는 주말 1층 기존 식당 상가의 매출 10~20% 증가하는 등 기존상인들의 매출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우수한 사례를 배우기 위한 전국 청년단체와 각급 기관의 벤치마킹과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시장 투어 안내 등이 줄을 잇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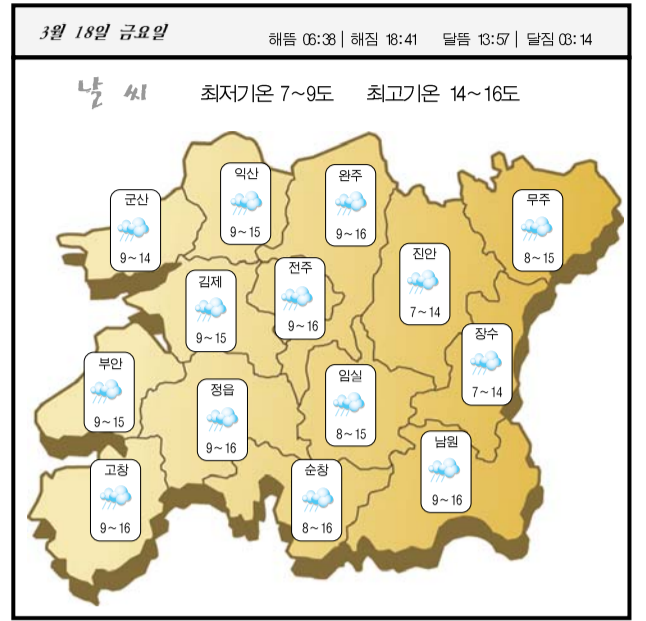
이와 관련 시는 지역의 청년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가칭)청년상상놀이터 조성을

통해 기존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의 틀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가치관과 창의성에 맞는 창작·창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청년들을 이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로 양성에 앞장설 일과 연계시키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시는 오는 2019년까지 추진되는 고교·전문대·기업이 연계된 5년 통합과정의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이론과 실무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경제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지난해부터 만 19세부터 27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건강검진사업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의 기를 살리고 행복한 청년들이 넘쳐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 청년들의 가능성을 찾아주고 청년들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의 기가 살아있고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들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청년일자리 '창업&고용존' 출범

상당 공간 '일자리 팔구사요(220-8945)카페' 운영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북도에 청년일자리 수요와 공급을 연결해 '창조경제' 역할을 할 '창업&고용존'이 출범했다.

오늘 개최되는 출범식에는 이형규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김진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포함해 취업지원관과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다. '창업&고용존'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취업·고용 상담 공간으로, 일자리를 찾거나 이직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일자리 팔구사요(220-8945)카페'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주고 창업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에게는 기업가 정신 함양과 창의적 아이디어 실현을 위한 창업아카데미 등 관련 창업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주)성과와 연계해 고용다담들과 사회맞춤형학과 프로그램 등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

이 원하는 인력양성과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와 관련 혁신센터에서는 고용존 구축을 위해 전북도 고용센터, 대학 창조일자리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5개 기관이 연계하여 협업을 위한 '고용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다.

'고용 협의회'는 ▲'일자리 중매쟁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며, ▲'취업트레이너'를 운영하고, ▲'인재 인큐베이터'를 운영하게 된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김진수 센터장은 "현재 중앙정부는 고용존 활성화를 위해 고용존 구축과 연계한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북도와 전담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고용서비스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고 취업과 창업 투트랙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 혁신교육, 잇달아 유럽교육과 만난다

독일 교사, 남원초서 2주간 공동수업... 전주중앙초·회현중도 예정

올해 전북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국제 교류가 혁신학교인 남원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추진된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독일 빈터후드 학교 교사가 혁신교육 국제 교류 일환으로 오는 21일부터 남원초등학교에서 2주간 공동수업과 실습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남원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독일 함부르크시에 있는 빈터후드 주립학교를 방문해 2주 동안 공동수업 및 실습을 진행한 바 있다.

독일 빈터후드주립학교는 독일의 혁신학교(Reform Schule)에 해당하는 학교로 학년을 0-4학년, 5-7학년, 8-10학년, 11-13학년으로 통합해 팀 중심 학습운영을 하고 있다.

또 모든 학생은 고유하다(uniq)는 생각으로 개별화교육, 자기 주도적 학습, 학생 중심의 개별화된 평가 등으로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혁신교육 국제 교류는 남원초등학교 외에도 5월 독일 헤센빌드학교

교사가 전주 중앙초등학교에서 교사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며, 회현중학교 역시 4월~5월 독일의 빈터후드학교 교장과 마이어 교사가 방한해 교사교류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의 혁신교육 국제교류는 2013년 독일 헬레네링에 학교 컨설턴트 앨버트 마이어(Albert Meyer) 교사가 교사 및 학생 교환을 제의해 다음해 헬레네링에, 헤센빌드 학교와 우림중, 회현중이 교사교류와 학생교류를 진행해 시작했다. /고민형 기자

또 지난해부터는 혁신학교인 회현중, 전주중앙초, 남원초등학교가 교사 교류를 하고 있다.

혁신교육 국제교류를 주도하는 독일의 앨버트 마이어(Albert Meyer) 교사는 혁신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국제 혁신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해오고 있다. 앨버트 마이어 교사는 독일과 국내 혁신학교 교사교류, 학생교류를 적극 지원하면서 양국의 혁신교육의 소통과 협업에 기여하고 있다.

혁신교육 국제교류 중 교사 교류는 독일과 전북의 학교가 서로 2주간 교환 방문해 상대방 학교에서 실습(job-shadowing) 및 공동 수업을 하고 이 밖에 참관 및 수업, 교육과정, 평가 방안 협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고민형 기자

고용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반려

"해고자 조합원 인정 안돼"

고용노동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해달라며 낸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공노는 2009년 12월1일과 2010년 2월25일, 2012년 3월26일 2013년 5월 27일에 이어 전날 다섯번째로 설립 신고서를 냈다. 정부는 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

하는 내용의 위법규약을 보완없이 제출해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설립해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합법 노조로 인정되지 않는다.

앞서 전공노는 2013년 10월 반려처분에 반발해 취소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했다. /석용주 기자